

## 격 려 사

지하철, 철도, 학교,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문화활동을 통하여 한국불교의 진수를 알리고 있는 풍경소리의 창립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때맞춰 전법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불기 2555년 전법 발원 다짐 법회’를 봉행하게 되는데 대해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불교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민족사상과 문화의 원류를 이루어 왔습니다. 삼국 ·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찬란한 문화를 형성해 왔고, 조선조 500여년의 오랜 박해와 억불(抑佛)에서도 서릿발 같은 불조(佛祖)의 혜명(慧命)과 문화의 맥은 면면히 전통을 이어 왔습니다.

풍경소리는 이러한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계승하고 나아가 시대에 맞는 전법활동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을 전개하여 많은 신행단체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풍경소리가 창립 12주년을 맞아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을 오롯이 견지하고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인 ‘전법 발원 다짐 법회’를 봉행하는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17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한국불교는 지금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종단 내외에 엄존하는 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잘못된 관행과 낡은 틀을 과감히 벗고, ‘자성과 쇄신’의 기운을 통해 종단의 자주성과 교권을 새롭게 확립하는 중차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종단은 국민과 함께 하는 불교, 사회와 함께 하는 불교를 통해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자성과 쇄신 결사’를 제안하고 60여 년 전 ‘봉암사 결사’ 이후 한국불교사에 남을만한 획기적 전환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 풍경소리 전법발원 법회

종단의 5대 결사 운동은 첫째 불교 본연의 모습을 확립하고 종교적 가르침을 바로 세워 나가기 위한 수행 결사, 둘째 민족문화를 바로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해 나가는 문화결사, 셋째 생명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생명결사, 넷째 사찰이 이웃과 사회와 함께 나누는 터전이 되도록 하는 나눔 결사, 다섯째 종교간 평화와 남과 북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한 평화결사로 자성과 쇄신 결사를 바탕으로 종교 편향 정책, 종교간 갈등 조장, 민족 문화 훼손 등에 대한 비판과 감시, 대응 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번 풍경소리가 봉행하는 ‘전법 발원 다짐 법회’는 종단의 중책과 함께 하고 5대 결사를 적극 실천하겠다는 다짐의 자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 전통문화의 원류인 불교문화의 현대화와 대중화에 앞장서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어 자비가 넘치는 세상이 이룩되기를 기원하는 서원의 자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풍경소리는 게시판과 전시회 등을 통해 대중에게 쉽고 친숙하게 불교를 이해시키고 평화롭고 행복 넘치는 인류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현대인들의 각박한 삶에 한줄기 감로수로 다가가 잠시 잊었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신행단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풍경소리 창립 12주년을 축하드리며, 오늘 풍경소리의 다짐이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촛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5년 4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